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 골든로타리클럽-아시아희망나무

캄보디아 캄퐁스푸 광주진료소서 해외 봉사활동

훈센고에 장학금·학용품 전달··K-푸드 등 한국 문화 홍보도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골든로타리클럽 (회장 최철호)이 (사)아시아희망나무와 함께 최근 캄보디아 캄퐁스푸 광주진료소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와 아시아 전역의 소외계층을 돕는 (사)아시아희망나무의 오랜 활동에 뜻을 함께하며 진행됐다.

지난 14일 광주진료소 개원 11주년 기념식을 맞아 캄퐁스푸주 훈센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학용품을 전달했다.

또한, 광주진료소를 찾은 주민과 학생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학용품을 선물했다.

봉사단은 한국의 정과 맛을 느낄 수 있는 K-푸드인 떡볶이와 김밥을 즉석 조리해 나누는 봉사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썼으며, 진

료소 인근 마을 주변 정화 및 방역 활동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국제로타리 3710지구에서 85번째로 2019년 4월 창립한 광주골든로타리클럽은 3710지구에서 가장 젊은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현재 40여명의 다양한 전문 직업군 회원들이 한평 집수리 봉사, 장애인보호작업장 봉사, 사랑의 삼계탕 나눔 등 국내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캄보디아 봉사는 해외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은 2025~26년 김옥중 지구 총재의 '우리 함께 선행을'이라는 테마 아래 봉사가 필요한 곳을 찾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골든로타리클럽이 (사)아시아희망나무와 함께 최근 캄보디아 캄퐁스푸 광주진료소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구, 소통문화 조성...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교육

‘세상에서~아파트학교 개강식’서 김이강 청장·입주민 등 참석

광주 서구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 강좌를 선보였다.

서구는 최근 창작농성골커뮤니티센터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마을자치(전문) 학교 아파트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개강식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아파트 입주민, 관리소장, 마을활동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아파트학교는 주민들이 아파트라는 생활 공간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오는 9월4일까지 운영되는 아파트학교는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남김없이 토지·자유연구소장의

‘아파트 민주주의’, 권명희 울산대 주거환경학과 교수의 ‘마을자치와 아파트공동체의 이해’, 송미숙 은평구 라미공동체 대표의 우수사례 소개, 김승수 똑똑도서관 관장의 ‘우리 아파트의 내일을 상상하다’, 박운정 민주주의기술학교 이사장의 ‘우리 손으로 만드는 작은 변화’ 등이다.

정익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은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어 나아가고자 사람 꽃이 피는 서구 아파트공동체의 정원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나갔겠다”고 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아파트학교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이웃 간 정을 나누고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구는 최근 창작농성골커뮤니티센터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마을자치 학교 아파트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했다.

한편, 서구는 지속 가능한 아파트공동체 조성을 위해 이웃과 눈 맞추고 인사하는 ‘미소 띠고 인사

하기(미·인·서구)’ 캠페인과 기후위기·재난 대응 시민실천활동 ‘WAVE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정성껏 만든 삼베 이불 어르신 여름나기용 전달

한국생활개선보성군연합회, 요양시설에 나눔의 손길

보성군은 최근 한국생활개선보성군연합회 의생 활동연구회들이 직접 제작한 삼베 이불 20채를 요양시설에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나눔 활동은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요양시설 내 고령 한자녀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삼베는 통기성과 흡수성이 뛰어나고 피부 자극이 적어 여름철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소재로, 요양시설 등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용하다. 이에 의생활연구회원 20여명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규방창작실에서 삼베 이불을 손수 제작했다.

회원들은 재료 준비부터 재봉, 마감까지 전 과정을 정성껏 수작업으로 완성했다.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에서는 회원들 간 협력과 배려가 돋보였다. 제작된 삼베 이불은 보성군 내 요양시설에 차례



대로 전달, 고령 한자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정서적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정자 의생활연구회장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tmth66@gwangnam.co.kr

조선간호대 학생들, 종합병원서 ‘산업체 인턴십’

광주시 RISE사업 일환

조선간호대학교 졸업예정자 51명이 최근 광주 병원 등 종합병원 6곳에서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광주시 라이즈(RISE) 사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인턴십에 참여한 조선간호대 학생들은 관찰 위주의 실습이 아닌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간호 실무 역량을 키웠다.

해당 병원 간호부장들은 “졸업 후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간호사로 키우기 위해 열정적으로 훈련시켰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조선간호대 박명희 총장은 “인턴십이 실제 취업까지 연결돼 우수한 간호 인재를 광주를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선간호대는 이번 산업체 인턴십을 시작으로 RISE사업단과 함께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



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실무형 간호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ISE사업은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학·관이 연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PEOPLE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농어촌공 전남본부
수해복구 성공 800여만원 기탁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농어민을 돕기 위한 성공 869만원을 전남사랑의 열매 추에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호우로 인해 전남지역은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농작물 피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더욱이 연이은 호우로 피해 복구가 더딘 곳이 많아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316명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은 성공을 전달했다.

김재식 본부장은 “농경지 침수 등 생활 기반을 잃은 농가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광주청 기동순찰대
기초질서 확립·야간 합동캠페인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역 전반의 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17일 광주 기동순찰대에 따르면 최근 첨단자율방범순찰대와 함께 광산구 쌍암동 쌍암공원 일대에서 공원 이용자 대상 기초질서 확립 야간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주민의 일상을 확보하고 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 질서 등 지역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쌍암공원 주변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가시적인 위력 순찰, 기초질서 위반 예방 홍보, 야외 물놀이장 안전 및 공원 내 우범지대 점검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펼쳤다.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 홍보 활동과 더불어 범죄로부터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협력단체와 협업을 통해 더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인사

국세청 ◇초임세무서장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영훈 △의산세무서장 장성기 △정읍세무서장 김해영 △포곡세무서장 김종수 △여수세무서장 김훈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 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플래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지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운세 (음력 6월 25일)

쥐	48년생 가족에게 말기지 말고 직접 처리하라 60년생 본보기 될 만한 것은 따로 있다 72년생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다 84년생 장래의 전망을 밝게하라 96년생 이성의 유혹을 뿌리치라	소	49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라 61년생 도움 요청에 상대의 회답이 올 것 73년생 꿈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85년생 답답해하지 말고 등산이라도 하라 97년생 조건에 따른 변수가 있을 것	호랑이	50년생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62년생 계획한 대로 쉽게 풀려나 간다 74년생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될 것 86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일을 당할 수 있다 98년생 결과 속이 다르니 현혹되기 쉽다
토끼	51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희망이 생긴다 63년생 직장에 변동으로 어수선한 날 75년생 친구 말에 상처를 입는 운 87년생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필요없다 99년생 이성운은 나쁜 날은 아니다	물고기	52년생 부담스럽다면 조용히 피해 나가자 64년생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시기 76년생 가족들과 상의하라 해결된다 88년생 매사가 순조롭게 풀린다	뱀	53년생 과도한 부동산 투자는 금물 65년생 친구가 중요하니 친구를 지켜라 77년생 아이디어 적용되고 이익이 있다 89년생 금전운은 보통이나 귀인을 만난다
말	54년생 매끄럽지 못하니 조심하 움직이라 66년생 필요한 만큼 돈은 생긴다 78년생 승진 운이 불안하다 90년생 신용이 회복되기 신임이 따른다	양	55년생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67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기쁜 일이 많다 79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91년생 귀하는 이미 사랑에 빠져 있다	원숭이	56년생 꼭 대게 다루는 것이 좋다 68년생 여자도 흔들림이 많은 날 80년생 금전과 자존심이 아프게 하는 날 92년생 새로운 자적 시험에 도전하라
닭	57년생 서둘러 하는 일에는 결과 없다 69년생 능력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임하라 81년생 불만하지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93년생 친구는 발 벗고 따라가야 할 것이다	개	58년생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70년생 바쁘지만 하고 실속 없는 날 82년생 남 말에 동요하지 말라 94년생 새 연인 만나 새 계획 세워 즐겁다	돼지	59년생 급하게 서둘러 손해 볼 우려 있다 71년생 협력자가 생기고 뜻밖의 재물이 온다 83년생 노력한 만큼의 효과도 나타날 것 95년생 노력을 닦은 결실이 맺어진다